

다시 태어남의 의미

성경말씀: 요3:1-15

자칫 말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인다. 개역성경의 용어 중 잘못된 말 중 하나는 ‘거듭나다’이다. 거듭나다: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

검찰 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을 일류 검찰로 거듭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 군은 부랑아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거듭: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도 거듭나려는 사람들이 무지 많다. “자꾸 자꾸 되풀이하려고 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런 모호한 말을 없앤다. 자꾸 거듭나면 안 된다. 단 한 번 다시 태어나야 한다.
중생(重生): 무거울 중, ‘거듭나다’보다는 나은 말인데 그래도 ‘다시 태어나다’만은 못하다.

미국에서도 다시 태어남에 대한 혼란이 많다. 음란 잡지 편집인 Larry Flint, “거듭났다고 공표한 뒤에도 여전히 그 잡지를 만들어 판매한다.”, NIV의 몰렌코트 박사: 여자 동성애자(레스비언) 다시 태어남이 개혁으로 이해되어 많은 이들이 오해와 혼동에 빠진다. <다시 태어남의 의미>

요한복음 3장 강해

1절: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밤에 니고데모가 젊은 랍비 예수님을 찾아감.

밤에 찾아온 이유: 들키지 않으려고 혹은 진지하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려고

니고데모: 바리새인=경건하고 엄격한 한 종교인,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 법에 의해 살고 법에 의해 죽는 사람, 조그만 것의 십일조까지 드리려는 사람, 모두가 위선자는 아니다. 종교적인 갈증, 영적인 무지

2절: 기적들(요2:23)

우리 주님은 먼저 누구나 알고 있는 출생으로 말을 시작한다.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어머니 배에서 출생한 것 맞는가? 확실한가?

3절: 천국에 가려면 자연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출생이 필요하다.

‘다시 태어나는 것’의 ‘다시’는 아래 있는 땅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4절: 고등 교육을 받은 니고데모의 반응: 어떻게 어머니 배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

지금 주님은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그는 지금 본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박사들, 대통령, 지식인, 철학자, 부자, 노인들 역시 이렇게 말한다.

많은 교인들: 입교, 세례, 집사, 장로, 목사, 새벽기도, 주일성수, 십일조, 아버지, 어머니 권사 등
5-6절: 인내하시면서 주님은 다시 배 속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말씀하심

‘물에서 나고’, 사람은 양수 안에 있다가 양수가 터지면서 첫째 출생을 한다.

이것은 세례나 침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큰일 난다.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십자가 상의 강도 등 모두 침례 받은 적이 없다. 물 침례는 순종이다.

첫째 출생은 본성적인 출생이요, 육적인 출생이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다(엡 2:1).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 이루어진다.

육적 출생: 정자와 남자 > 자연적인 본성을 가진 자, 옛 사람

영적 출생: 하나님의 영(요3:5)과 하나님의 말씀(벧전1:23-25) > 초자연적인 보성을 가진 자, 새 사람 (요일3:9)

영적으로 출생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 혹은 약속을 듣고 믿고 반응하며 그분의 거저주시는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 신구약 시대 공통이다(창15:6; 롬4:1-5; 6-8).

육적인 출생에도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이 있듯이 영적 출생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당사자가 구원받게 하기 위한 친구들의 해산의 고통이 있다.

육적 출생을 하면 부모의 본성을 닮듯이 영적 출생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요 1:12-13).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벧후1:4).

본성에 따라 식욕이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본성을 입으면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된다(벧전2:2-3).

그래서 젓을 먹다가 이유식을 하다가 밥을 먹고 고기를 먹듯이

성도도 순수한 하나님의 젓을 먹다가 딱딱한 고기도 씹어서 먹으면서 성장한다(히5:11-14).

아기가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도 스스로 만들어지지 못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질적), 영존하는 생명(양적), 풍성한 생명

아이가 태어나면 그에게 과거가 없기에 아무도 그를 체포하지 못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의 과거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다 기억도 안 하신다(칭의).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후5:17).

‘그런데 거짓 성도들을 양산하는 데가 많다.

특정 교회, 방법, 기간, 체험 No!,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7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니고데모의 문제: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다. 유대인이다. 새로 태어나는 것은 이방인에게 나 필요하지 않은가?

8절: 마치 거기에 바람이 불고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 바람은 느끼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 성령님에게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 이것은 미스터리이다.

실제로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미스터리이듯이 주 안에서 아기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9-10절: 아직도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 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많은 지식을 소유하였으나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요3:9-10).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구약의 많은 것을 읽고 알았으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11절: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권위는 인정하였으나 모세보다 크신 분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다(11).

특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에 급급하였다(요12:37-50).

12절: 사람의 출생이나 바람 같은 땅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니 하늘의 것들은 어찌 알겠느냐?(12)

불 뱀과 놋 뱀 사건(민21:4-9)

호르 산을 떠나 홍해 길로 에돔을 돌아서 가려 하였으나 길이 좋지 않다고 백성이 불평을 함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왜 이집트에서 데려와 여기 광야에서 죽이느냐? 빵도 물도 없고 이 만나는 푸석푸석해서 싫다.

불 뱀들을 보내매 많은 사람들이 죽음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중보를 요청함. 하나님의 말씀: 놋으로 똑같은 불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누구든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누구든지 그 뱀을 본 자는 살게 됨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장대에 달린 놋 뱀을 쳐다본 자만 살아남음

장대에 뱀을 달아 들어 올린 것처럼 예수님 역시 십자가 위에서 들려졌다.

고대 유대인들의 뱀 처방전: 해독제, 뱀을 죽이는 것, 고약, 뱀 약, 장대 오르기 No!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에 달려 위로 솟은 놋 뱀을 바라보는 것, Yes

불 뱀이 사람을 물어 죽게 했듯이 지금까지 죄가 사람을 물어 죽게 하였다(죄의 삯은 사망 롬6:23).

불 뱀을 놋 뱀으로 치료했듯이 사람의 죄는 죄로 치료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땅 위로 솟아오른 뒤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에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죄도록 스스로 죄가 되셨다(고후5:21; 롬8:3).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구원 받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히12:2).

본성과 식성의 변화

1.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구한다(벧전2:2-3).

2. 두 본성으로 인해 심한 갈등이 생긴다.
3.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죄에 대해 매우 민감해진다(롬6:1-2).
4.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랑한다(요일2:15-16; 5:4).
5.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모임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를 원한다(요일3:14).
6.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혼을 사랑한다(롬9:1-3; 10:1; 고후5:14).